

##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조해선<sup>a</sup> · 류진아<sup>b,\*\*</sup>

<sup>a</sup>백학꿈나무어린이집(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sup>b</sup>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 인식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탐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안정적 농촌사회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 13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현상학적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착하고 따뜻한 남자', '그냥 별 생각 없었음', '깨끗하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 '아내를 고생 안 시키는 남자', '가사는 내 몫이 아닌 남편 몫', '독립된 가정 꾸리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이었다.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잘 사는 한류의 나라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함께 그에 대한 기대가 남편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사전 조사와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의 출신국에 존재하는 사회분위기 및 가족과 부부문화가 한국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마음이 좋고 잘 해줌', '나에게 맞춤', '무책임과 무관심', '마

\* 본 연구는 조해선(2012)의 석사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류진아) 전화: 031-860-1416; email: jina1031@hanbuk.ac.kr  
483-777)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음을 iv 기댈 수 없음, '집안 일 별로 안함', '시대과의 중간역할', '아이와 부모, 친척 먼저 챙김', '술과 도박, 폭력을 함'이었다.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경험은 남편역할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지각하는 남편역할에 대한 경험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남편역할,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 1. 서론

한국사회에서 국내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들은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 여성과 그 자녀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도시 인구의 20%, 농촌인구의 80%가 다문화가족으로 인한 다문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20대 한국인 5명중 1명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이고, 신생아 중 3분의 1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다문화가정은 한국사회와 결혼이주여성이 유입한 모국사회의 가족구조 및 문화적 요인이 동시에 접촉되는 문화접변의 장(environment)으로서 가족구성원간의 접촉과 변화, 수용 여부로 인해 다문화가족만의 독특한 특징을 형성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형태로서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로 인하여 시부모의 관여,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이 이주여성에게 전담되어 있고(한국여성개발원, 2006), 일방적인 문화적응의 몫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시댁과 남편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모국의 친정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내포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서 문화적 차이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생활에의 적응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오남, 2006; 문은희, 2007; 박재규, 2007; 양순미, 정현숙, 2006; 유영은, 2006; 이정희, 2006).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을 비롯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등과 함께 가정폭력, 음주와 같은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설동훈, 이혜경, 조성남, 2006; 안효자, 박순희, 최은정, 2010).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한국인 부부와 다르게 부부 간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문화적 차이는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반영될 것이며 이는 결혼 후 실제 경험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부부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이라는 가장 친밀한 공간에서 매일 부딪치고 협상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장은정, 2007).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함에 있어 상대방의 문화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적 가치관에 입각해 추측과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부부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박순희, 2011). 반면에 한국인 남편들 또한 외국인 아내가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할 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장은정, 2007; 변미희, 강기정, 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인하여 원만한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므로(전혜정 외, 2009) 이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에 다문화가정 부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아내에 대한 것이며 남편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다문화가정 부부의 배우자역할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편의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성현란, 2011), 가정폭력 행위자로서의 남편(박진희, 2012; 이은주, 2004)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배우자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배우자인 남편의 역할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심도 있게 탐색함으로써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안정적 농촌사회 적응능력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 2. 이론적 배경

### 2.1. 농촌 다문화가정의 특징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김승권 외, 2010)에 따르면 전체결혼이민자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29.7%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시보다 농촌이 더 높은 자녀출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103,484명으로 2009년의 두 배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의 자녀들이 6만1700명으로 전체의 59.6%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농촌지역의 생활방식과 문화 등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전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시부모나 시댁식구들과 동거하거나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윤명숙, 이애경, 2010).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과소화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여성결혼이민자와 농촌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집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A타임즈, 2006).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와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농촌의 저발전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과중한 농업 노동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 때문에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촌지역을 멀리하고 배우자로서 농업인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농촌지역 남성의 비자발적 만혼증가는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농촌사회 내부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성 농가인구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추진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주민구 확보 차원에서 농촌 노총각의 국제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강혜정, 2009).

농촌 다문화가정은 빈곤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김오남, 2006; 김이선, 정해숙, 김영주, 2008; 류진아, 2011), 부부간 학력격차도 심하고(양순미, 2007), 성장 배경이 다르고 인성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양식에도 차이가 있어서 부부가 상호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주여성 부부에게는 이외에도 언어적 장벽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문제들이 가중되어 적응과정에서 국내혼인한 부부들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결혼이민여성의 인식과 바람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아내가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문화, 시댁문화에 잘 적응해 주기를 기대하므로(양승민, 연문희, 2009) 여성이 적응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으며, 농촌 다문화가정 부부의 이혼이나 부적응의 원인은 국제결혼 생활의 어려움 즉 언어, 가족생활,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부부 및 가족 간의 상호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양순미, 정현숙, 2006).

## 2.2.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과 배우자 역할

배우자 역할이란 결혼 내에서 상호동반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Aldous, 1974). 보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어느 한 가지 역할을 상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결혼관계에서 남성은 여성에게서 물질의 제공자, 성 상대자, 동반자, 의사 결정자, 아버지 역할, 정서적 지지, 재정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 받는다(Duvall, 1974).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부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한건수, 2006 재인용).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가치로서 부부중심성과 애정중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언어장벽과 역할인식 불일치(박경동, 2007)가 가족 간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다. 짧은 맞선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형성되어야 할 정서적이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외국에서 온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 있게 행동하는 자상한 남편의 이미지이지만(박경동, 2007), 한국의 고맥락문화(김민정 외, 2006)에서 한국인 남편은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인이 눈치껏 알아서 행동해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이러한 역할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갈등과 혼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박경동, 2007). 양승민과 연문희(2009)는 국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이 다문화가정의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성사단계부터 불평등한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관계에서 가족 내 상호작용과 부부간 권력역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는 결혼 이후의 생활이 만족스러울지 그렇지 못할

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기대와 희망에 집중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의무나 위험 부담은 관심에 두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기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양승민, 연문희, 2009). 이주여성배우자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며, 모국의 경제적 곤란을 탈피하려는 동기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배경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고, 다문화가정에서도 이주여성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쪽의 문화와 국가정체성을 동등하게 수용해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한국의 차별적 성역할을 부과함으로써 이주여성의 결혼과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박주희, 정진경, 2007).

### 3. 연구방법

#### 3.1. 연구 대상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구 분	나이	출신국가 (국적)	결혼 기간	동거가족	학력	직업	결혼 과정
1	본 인	33	중국	10년	딸1명	대졸	가사	가족
	배우자	47	한국					
2	본 인	37	키르기스 스탄	10년	아들2명	대졸	농업	결혼
	배우자	47	한국					

3	본인	45	중국	9년	딸1명	전문대	센터	결혼 이민자소개
	배우자	47	한국			고졸	농업	
4	본인	31	중국	5년	시부모, 친정엄마 아들2명	고졸	가사	결혼 이민자소개
	배우자	38	한국			고졸	운전사	
5	본인	39	중국	7년	시부모 아들1명	고졸	요양보호사	가족소개
	배우자	42	한국			고졸	샤시공	
6	본인	31	캄보디아	8년	시부 아들2명	초졸	가사	중매업체
	배우자	44	한국			고졸	가게운영	
7	본인	29	캄보디아	8년	시부 아들3명	초졸	가사	중매업체
	배우자	50	한국			초졸	농사	
8	본인	39	태국	12년	시모 딸1 아들1명	중졸	가사	통일교
	배우자	50	한국			중졸	덤프기사	
9	본인	38	중국	4년	시모 아들2명	고졸	가사	중매업체
	배우자	51	한국			중졸	용접공	
10	본인	42	태국	8년	시부모 아들2명	고졸	식당알바	가족소개
	배우자	46	한국			고졸	농사	
11	본인	26	베트남	8년	딸2명	중졸	농사	중매업체
	배우자	49	한국			고졸	농사	
12	본인	31	중국	7년	시부모 아들1딸1	중졸	농사	중매업체
	배우자	40	한국			고졸	전기	
13	본인	29	베트남	8년	시부모 아들1명	초졸	김치공장	중매업체
	배우자	49	한국			초졸	농사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준거적 선택방법(조용환, 1999)을 적용하였다. 우선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부모 중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하였고 이후 눈덩이 표집방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대상자들을 발굴하였다. 질적 연구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하는데, Strauss와 Corbin(1990)은 포화 상태란 범주와 이론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확보되어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한 뒤 심층면접 날짜와 시간 약속을 하였다. 심층면접에 앞서 참여자의 면접시간 확보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참여자의 집에서 주로 진행되었으며, 1회 면접 시간은 한 번에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초기 분석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진술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면접을 이어갔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는 동시에 상황에 대한 별도의 기술을 하여 중요한 내용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분위기 등 모든 상황은 방문일지 형태로 기록을 남겼다.

###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구성한 후 주제, 주제 모음으로 범주화하여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Colaizzi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의 6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제 1단계에서는 참여자의 느낌을 얻기 위해 모든 참여자의 진술을 읽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인식과 경험, 아내역할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해 최대한 공감하고자 면담내용을 듣고 문자화된 원자료를

주의 깊게 읽었다. 제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을 찾아내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제 3단계는 의미 있는 말이나 문장들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 연구자는 직관과 분석기술을 이용해 의미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48개의 의미가 나타났다. 제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 묶음 또는 범주로 분류하여 조직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원 자료와 구성된 의미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하위범주를 만들었고 이를 다시 주제범주로 조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7개의 주제와 63개의 주제묶음으로 나타났다. 제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해 최종적인 기술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주제 묶음을 통합하여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제 6단계에서는 최종적인 기술을 타 당화시키는 과정으로 참여자에게 되돌아가서 대상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4가지 항목에 근거를 토대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검토하였다.

## 4. 결 과

### 4.1.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주제묶음과 1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표 2>와 같다.

#### 착하고 따뜻한 남자

참여자들은 남편이 아내인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을

믿어주고 신뢰하여야 하며, 로맨틱하게 기념일에 선물을 챙기는 등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으면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 출 신국에 있을 때 한국의 배우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이 없었지만 주위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의 소개와 적극적인 권유로 결혼을 결심하면서 마음이 착하다는 말을 믿고 남편을 선택하였다.

고마움,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해주고 그러면 더 잘 노력하고...  
진짜 알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례5)

없었어요. 그냥 언니가 오라고...(중략) 엄마가 그냥 결혼하라고....  
저 언니가 남편.. 얼굴 멋지지 않아.. 하지만 맘이 착하대.. 마음이 착해... 그냥요.(사례10)

〈표 2〉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 인식에 대한 분석

대주제	주제묶음	주제
남편 역할에 대한 인식	착하고 따뜻한 남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알아줌 마음이 착함
	깨끗하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 술과 담배 안함
	아내를 고생 안 시키는 사람	돈 많이 벌어들임 여자를 끝까지 책임짐
	그냥 별 생각 없었음	그런 생각한 적 없음
	가사는 내 몫이 아닌 남편 몫	가사활동을 남편이 도맡아서 함
	독립된 가정 꾸리기	내 식구 중심으로 살아가기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숙제, 체험활동 해주기 아이 좋아하고 잘 되기를 바램

### 깨끗하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

참여자들은 남편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자신감과 능력이 있으며,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향수나 화장품으로 외향을 꾸미는 매력적인 사람일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은 어떤 부인이어야 할까를 상상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였다. 이와 함께 한류스타처럼 얼굴이 잘 생기고 멋진 남성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참여자는 향수나 향료 등에 대해 친숙한 문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인지 남편이 향수나 화장품으로 외향을 깨끗하게 꾸미고 얼굴이 멋있기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류드라마를 많이 접하면서 한국의 남자들이 드라마의 남자주인공처럼 외모가 수려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짜 우리 남편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리고 사장님이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일반 사람보다... 이렇게 뭐 자신감 있고 또 뭐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겠지...(중략) 키르키스탄에서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추운 나라니까 우리도 여기 소주보다 뭔가가 40도가 더 독하죠. 그래서 거기 남자들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피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아니요, 그 나라는 그런 거 없다고...(사례2)

남편은 깨끗해 사람이, 그 남자 향수 뿌리고, 냄새 좋고, 화장품... 그 멋있게 회사 다녀오는 거...(중략).. 깨끗해 하면 잘 보이잖아요. 얼굴 멋있고..... 현빈처럼...(중략)..(사례10)

### 아내를 고생 안 시키는 사람

남편이 책임감이 강하고 따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으며,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자신의 식구들을 챙기고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가

장의 모습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남편역할을 인식함에 있어서 자신의 출신국 남자들이 역사적 사건의 영향으로 책임감이 없는 것에 비해 결혼을 하면 그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끝까지 행복하게 살 거라는 꿈을 키워가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결혼을 하기 전 사전 정보를 통해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책임감이 있었으면...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70년간 러시아랑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 러시아 사람들 보고, 그니까 유럽 사람들처럼 그쪽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남자들은 좀 책임감 없어요... 어느 것에 대해서 책임감 없다면, 결혼해요. 결혼하면은 그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중략)... 진짜 끝까지 책임지고 남의 남자다 그러면서... 여자를 고생 안 시키고... 다 남자가 책임지고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애기 키우고 아빠는 또 이렇게 돈 벌면서,,, 애들 키우느라 아내를 고생 안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중략) 남편들은 좀 아내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 내가 그 여자랑 살고 싶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을 갖고 끝까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끝까지 행복하게 애들 키우고 살 거예요'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사례2)

### 그냥 별 생각 없었음

남편의 역할과 결혼생활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 있기보다는 출신국의 경제적 여건을 포함한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남자와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편역할에 대해서 인식이 있지 않았으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 이렇게 하고 살거야) 아니요... 생각 안했어요. 그런 생각 안했어요. (중략) 근데 우리 친구 한국으로... 한국 와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 남편도 좋았어요... 그.. 우리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전 생각했어요.. 한국 오고 싶었어요. 그 때 중국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 오고 싶었어요.(사례9)

### 가사는 내 몫이 아닌 남편 몫

한국의 문화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의 출신국에 존재하는 사회분위기 및 가족과 부부문화가 한국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남녀 간 사회생활과 가사분담이 동등한 사회주의 문화에서는 많은 부분의 가사활동을 도맡아서 할 줄 알고 있었으며, 한국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함에 있어서 장보고 청소를 하거나 부엌에 가서 요리하는 등 가사노동은 아내인 자신의 몫이라기보다는 남편의 몫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청소도 도와주고 뭐 해본다고 하기도하고 나가서 혼자 장까지 봐오고, 그래서.....(중략)..근데 중국의 풍습은 이래요... 남자여자 같이 다 맞벌이해요, 맞벌이하고 집에 와서 가사는 실을 남편들이 더 많이 해요..예.... 가사노동은 남편들이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사는 지역에서는 진짜 남자들 ...주방에서 요리하구 방치우고.....(중략)...가사는 내 몫이 아니고, 남편 몫이고 ... (사례4)

### 독립된 가정 꾸리기

결혼을 하면 원가족과 분리되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할 것을 인식하며 남편이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자신의 식구들을 챙기며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의 모습을 인식하였다.

내가 식구 만들고, 한 식구가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른이 되고, 그 식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근데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내 식구만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고 자기 부모부터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형제들... 형제들부터 생각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아내... 인 것 같아요.(사례2)

###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남편이 자녀를 갖는 것을 좋아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강하기를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아빠가 숙제와 체험활동에 대한 역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빠가 육아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한국으로 시집간 친구들이 한국의 남편이 아이를 낳으면 좋아하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겠다는 인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아빠 당연히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얘기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이 육아라는 것은 아빠, 엄마가 같이해야지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아빠들도 많이 해요... (중략)...숙제도 봐주고, 주말되게 되면 나가서 등산이라도 같이하고, 체험들도 같이하고, 아빠가 이 역할 더 많이 해요.(사례1)

(한국에 시집간 친구가) 얘기 낳으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잘사는 거 바라고... 그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아! 우리도 한국에서 살까? 야! 한국에 가서 그냥 좋은 남자 있으면 우리한테 소개시켜줘.....(사례2)

## 4.2.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경험

본 연구에서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8개의 주제묶음과 2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표 3>과 같다.

**마음씨 좋고 잘해줌**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에 남편이 잘 이해해 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무마해 주며,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부인이 친정이 멀고 낯설어서 가까운 지인을 찾아갈 곳이 없어서

〈표 3〉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역할에 대한 경험 분석

대주제	주제묶음	주제
남편 역할에 대한 경험	마음이 좋고 잘 해줌	이해해주는 거 많음
		힘들 때 얘기 나눔
		친정식구한테 잘함
	나에게 맞춤	음식과 습관을 바꿈
		내가 못하면 자기가 함
		돈이 없지만 지지하고 챙겨줌
	무책임과 무관심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림
		나와 아이에게 관심과 노력이 없음
	마음을 기댈 수 없음	달래주겠지 생각했는데 함께 움
		표현을 하지 않고 믿지 않음
	집안 일 별로 안함	기념일도 안챙겨줌
		자기 일만 잘함
나와 시댁과의 중간역할	내가 다하고 그냥 있음	
	시댁과 나의 중간에 섬	
아이와 부모, 친척 먼저 챙김	시댁어른과 나를 함께 챙김	
	아이한테 신경 많이 씬	
	부모한테 말 못하고 못살아도 잘함	
	형제와 친척 먼저 생각함	
술과 도박, 폭력을 함	내 아내다 챙겨주는 거 없음	
	술 먹고 때리고 화냄	
		도박과 폭력으로 감옥 감



자신이 나간다고 말하는 것을 참여자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으로 경험하였다. 주말에 놀러갈 때도 참여자가 원하는 곳을 말 안 해도 찾아서 가고 마음이 좋아서 부인이 하기 힘들거나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남편에게 정서적, 일상생활 적응을 많이 의지하며 자신의 힘든 점을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다. 남편이 자신 뿐 아니라 처가인 친정식구한테도 따뜻하게 대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느꼈으며 동생이 하는 일을 물질적, 정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혼녀라는 소문에)저희 남편은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그때 문제는 그것을, 그것을 제가 좀 지나서 알았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지나고 그 소문을 남편이 잘 얘기 했어요...(중략)...저랑 남편하고 싸우면 남편이 집 나가요. 저는 갈 때 없다고 안 나가요. 자기가 나간 데요...(중략) 저 같은 경우에는 소문이 나도 신랑이 다 이해줘요...신랑이 그냥, 남편한테 피해 안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남편한테 피해만 안주면 된다고...(사례3)

일요일이면 집에 있으면, ‘야 놀러가자’ 자기가 먼저... 어디가면 자기가..어디가자..하면..그래 가..아무리 제가 가고 싶은데 가요.. 신랑이... 제가 말 안 해도.. 우리 어디 갈까?.. 하면 가는거예요.(사례8)

친정식구들한테 잘해요. 저희 남편 마음이 따뜻하고, 남편 같은 사람 진짜 별로 없을 걸요... 중국에서는 딸 시집가면 가전제품을 다 해줘요.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갔어요. 그게 너무 고맙데요. 자기 친구들한테도 그게 자랑거리가 있네요.. (중략) 저희 동생도..동생, 그때 처음에는 음료수 가게 했어요. 오토바이도 좋은 것으로 사줬어요... 근데 남편이 다 해줘요 그것을...(사례3)

## 나에게 맞춤

다문화가정 부부간에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음식

과 습관이 다름도 남편이 부인을 위해 바꾸고 맞춰가는 경험을 하였다.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헤아려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마음을 알아 주는 남편의 고마운 마음씨를 느끼고 있었다. 부인이 자기가 하기 힘들어 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도 느끼고 좋아하게 된다든지, 아내가 냄새나서 싫어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끊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말과 문화, 교육방식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는데 주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남편들은 경제적 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고 아내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지는 못하지만 자녀 양육과 집안일에 있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면도 있었다. 즉 집안일이나 아이의 숙제를 남편이 도맡아서 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못하면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아내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지지하고 챙겨주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아침은 집에서 안 먹어요. 아침은 대부분 나가서 콩물 사먹고, 우유 사먹고, 간단하게 빵 사먹고, 죽 사먹고 이렇게 사먹는데 처음에 가가지구...밥을 기대했는데 밥을 안 하고 우리 맞은편에 식당, 간식당이 있어요 학생들 점심 제공해주는 식당인데, 거기 데리고 가서 아침밥을 먹었어요.(사례1)

신랑은 처음에 국수 싫어했어요. 국수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저 만나고 어디 놀러 가잖아요. 이제는 무조건 국수, 비빔국수, 막국수 그런 거 무조건 그 가게 들어가요 이제 신랑은 국수 좋아해요. 이제는 아니야 다 좋아, 국수 안 해먹으면 안돼요. (중략) 담배 싫어, 술도 싫어.. 냄새가 싫어 그랬더니 결혼했다가 제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달 있다가 오거든요? 그때 담배 안 피요. 얘기로는 너 때문에 담배 끊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피워요. (중략) 학교하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써주는 거... 그런 거는 다 해

주고... 제가 못하면 자기가 다 해주고.... 어려운거 좀 있다가 뜻 좀 모르면 그냥 '자기가 해줘...' 이러면 다 해주고.. (사례8)

### 무책임과 무관심

참여자는 남편에게 배려 받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현행 국적법에 따라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조차 신경 써주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찾아다니며 버겁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남편은 다문화가정 여성이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마음대로 하라며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F2 받고 들어와요. F2 비자가 처음에 들어 올 때는 3개월 유효기간 이예요. 그 3개월 이후는.. 혼인관계에 있어도 그 사람은 불법체류자 되버리는 거예요. 3개월 되기 전에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되요....(중략)... 외국인 등록증도 기간이 있어요...(중략)...실은 남편들 와서 돕고 이렇게 해줘야하는데 그런데...남편이 못해주는 거예요.(고향방문 위해)...(중략)... 출입국 사무소 갔더니, 벌금을 내야한다. 안내면 갈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단체에서 벌금까지 어느 정도 내줬어요. 그리고 가게 됐는데 남편이 또 못가겠다고 난리 난리쳐가지고....(중략) 제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남편분 봤어요. 언어를 열심히 배워요...마누라는 한국말 배울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남편이 맞춰가요. 그런 남편도 봤어요. 남편이 할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할라고 하는 거죠.(사례1)

애들은 다 저한테 알아서 해라고 해요... 병원가는거나 뭐... 처음 때는 애기... 둘째 낳고 좀 데리고 갔는데 병원 데려갔는데.. 저 아직 말 못하잖아요... 애기 낳으러 병원 갔는데... 또 아프고 일도 보고... 그냥 내가 알아서... 애기 그냥 감기 걸려도... 그니까 그냥 제가 버스타고 애기 데려갔다 올게 이르고.. 그때부터 그냥 제가 다 알아

서...애기 학교 갈 때 뭐 하는 거 다 제가... 근데 편지 집에 보내오는 거 저 잘 모르는데... (사례7)

큰애 애기 낳았을 때 저도 혼자 낳어요...남편 없어요. 집에 왔어 서...(소)밥 주느라고... 이런 게 너무 속상해요...저 금방 애기 낳잖아요...방에 혼자 있어...남편 불러도 없어. 전화해도 안 받고... 배 막 너무 아팠는데...너무 아파요. 근데...옆에는 남편 같이 있어요. 저는 혼자 있어. 혼자 울어요... 남편 옆에 있어요. 자기야 흑...이렇게 남편이 해주잖아요. 예쁜 말 해주고 노래도 해주고...저는...아이구...나는 옆에 배 아파 죽겠어. 누구도 없고...(시어머니는?) 없어...(사례10)

### 마음을 기댈 수 없음

아내가 결혼 초기에 한국생활이 힘들어 혼자 울고 있어도 달래주고 힘이 되어주기 보다는 함께 우는 남편도 있었으며, 사랑한다, 고생한다 등과 같은 감정표현이 없고 기념일도 안 챙겨주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답답하고 섭섭해 하였다. 아이들 낳고 살아도 출신국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말로 아내를 서운하게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부부로서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짧은 맞선을 통해 결혼을 결정했고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시간이 적었으며, 언어적 한계로 부부간에 정서적이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생활에서 남편에게 마음을 기댈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성숙한 면모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말도 모르고... 좀 많이 울었어요.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서 많이 울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남편, 한 달 두 달... 지난다음에 우리남편 들어왔어요. 울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느끼잖아요. 우리남편 들어온걸... 그래서 울면서 내 속에는 남편 들어왔으니까 나를 울

지 말라 (연구자: 달래주겠지) 달래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나한테 안와요. 여기 침대에 앉았어요. ‘왜 앉아서 기다리지? 울지 말라 그래야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울면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훌훌 소리가 들려요. 울면서 ‘무슨소리지?’ 그러면서 천천히 딱 보니까 같이 우는 거야... 깜짝 놀라서 내가 계속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웃음) 잠깐 멈춰가지고 이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깜짝 놀랜 적도 있고... 아 우리남편 이상하다...(사례2)

한국남자는 이런 거 자기 좋아하는 표현 안하잖아요. 잘 못하고.....자기 사랑해도 그런 말 하나 안하니깐 어떨 때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사례8)

드라마 보면 남편이랑 여행 가자나요 이렇게 갔으면 너무 좋겠어 그러면 자기가...아이구...뭘.... 저 생일 언제인지도 모르고, 아들도 언제 생일인지 모르고...자기가...나생일 나도 몰라...(중략)... 저 혼자 생일 저 혼자 술 먹었는데...자기..‘자기 빼졌구나..몰랐는데 너 생일 빼졌구나. 그러더니 자기가 자기 케이크 사오지도 않고.. (사례10)

### 집안일 별로안함

남편이 결혼 초기에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는 가부장적 생각으로 돌아가 집안일하는 아내를 당연시하고 가족과 외출하기, 친척집 방문, 집안대소사에 관련된 일도 챙기지 않으며 아내에게 미루기도 하였다. 아이와 놀기도 하지만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일만하고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다든가 하는 가정적인 면은 드문 경우도 있었다. 상갓집이나 친척집에 가는 등 집안대소사에 관련된 일도 아내에게 미루는 남편도 있었다.

다른 것은 몰라요. 애기 데리고 놀러가 그러면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생각 안 나와요. 저 한번 물어봤는데 오빠 왜 놀러가기

싫어? 우리 애기 좀 데려가 어디 놀러 가자 나 오빠 결혼 몇 년 했는데 오빠 한 번도 나 안 데려가 놀러갔네, 했더니 가고 싶으면 가, 갔다 와...(사례12)

저희 남편이...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그니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집안에 무슨, 장사 집은 여자들은 안가잖아요. 어쨌든 실수 할까봐. 장사 집은 안 보내고, 뭐 든 잔치, 동네에 뭐 자기네 집안이든지 안 가려고 해요. 안가요. 저만 보내요.... 진짜 뭐 친척 친척 네는 가지만 안 가려고해요. 나서질 안아요. 무슨 서류 떼는 것도 그렇고 안 나서려해요.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사례3)

### 나와 시대과의 중간역할

남편이 시대과의 관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어도 시어머니나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을 좋은 점이라고 경험하였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똑같이 챙겨주면서 가족의 균형을 도모하고 화합 하도록 하는 모습도 보였다.

둘이 싸웠으니까 둘이 얘기하라고. 신랑은 그래요. 말도 안하고 엄마가 말하면 얘기 듣고 그냥가고, 마누라 얘기 듣고 그냥가고, 그냥 가서 마누라가 어찌고저찌고 얘기 안하고 엄마가 어찌고저찌고 얘기 안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말 하고 그런 거 안해요. 좋은 점이죠 뭐 어떤 사람 보면 남편이 시어머니, 자기 엄마 편 들으니까 승질 내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혼하고 싶죠. 우린 그런 거 없죠.(사례8)

집에 맛있는 거 먹을 거 사오면요 꼭 두 개 사와요. 겨울에 딸기 비싸잖아요. 딸기 사와도 두 박스를 사와요. 하나는 할머니 갖다드리고 하나는 나주고.(사례5)

### 아이와 부모, 친척 먼저 챙김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고 신경을 써 주는 것에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에게는 관심과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에 서운한 감정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면도 있었다. 또한 남편이 '내 아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먼저 위해주기보다 아이나 시부모, 친척을 먼저 챙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와 자녀보다도 원가족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시어머니 편을 들고 미분화된 자아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못살아도 시부모를 더 챙기는 전통적인 '효문화'적인 아들의 모습을 보였으며, 형제와 친척을 먼저 챙기는 '시대문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부모한테 잘해줄수가 있어요?...(중략) 내가 식구 만들고, 한 식구가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거 같아요. 그 어른이 되고, 그 식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되는 것... 근데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내 식구만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고 자기 부모부터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형제들... 형제들부터 생각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아내... 인 것 같아요. (사례2)

남편은...자기 엄마한테 아무 말 못해요. 자기는 ..자기가 안 되고, 어머니한테 그래도 안 되고. 자기 어머니간...그래서 남편은 도와 줄 생각 없어요. 저희 남편은 (시)엄마, 아빠한테 잘해요...(중략)... 우리는 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야 돼...먼저. 엄마, 아빠 생각하고...(사례10)

애들 앞에서 진짜 내 아내다... 우리 엄마다...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무시하는 거 그런 거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진짜 아빠같이. 아이랑 아이처럼 놀지 말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빠처럼 아빠역할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사례12)

### 술과 도박, 폭력을 함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었고, 술 마시기 전에는 온순하다가 술만 마시면 성격이 무서워지고 가족들에게 심한 욕을 하고 폭력행동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하였다. 폭력을 가하는 남편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큰소리를 내므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이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모습에 여성은 힘들어 하기도 하였다.

남편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남편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지금 오면 남편.....때리잖아요...(사례6)

술 먹고...조금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다 싫어요. 다 똑같아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중략)..켰으니까... 좀 알잖아요. 술 먹는 거 싫고 그냥... 아빠 맨날 술 먹는 거 아니까 싫어해요. 아빠 좀 무서워해요... (사례7)

아는 사람은 남편은 도박해요... 남편은 도박해서 폭력을 써서 감방 갔어요.. 지금 감방에 있어요... 처음 사람 괜찮아요... 저는 아랫사람이에요... 여기 한국 와서 일 년 넘어서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도박해요... 여자는 돈 조금 있으면... 삼만, 오만 있으면 가져가요... 그 남편도 도박 하면 그 와이프는 몰라요... 많이 해서 필요 돈이... 필요 돈이 많아서요.... 근데도... 그 뭐야... 그 사람이 집에 자주 와서 돈 달라고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사례9)

## 5.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역할에 대



해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잘 사는 한류의 나라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함께 그에 대한 기대가 남편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고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자식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착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향수와 화장품으로 외향을 꾸미며 깨끗하고 멋있으며,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갖기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문화에 대한 사전 조사와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의 출신국에 존재하는 사회분위기 및 가족과 부부문화가 한국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남녀 간 사회생활과 가사분담이 동등한 사회주의 문화에서는 많은 부분의 가사활동을 남편이 도맡아서 할 줄 알고 있었으며, 향수나 향신료와 같은 것이 발달하고 많이 사용하는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배우자가 화장품이나 향수로 외모를 가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잘 사는 나라인 한국에서 만든 한류드라마의 영향으로 남성들이 대부분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여성에게 따뜻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한류 드라마의 주인공 남성처럼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력적이고 멋있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착하고 따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어른스럽고 성숙하게 자신의 식구들을 챙기고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의 모습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erry와 동료들(1988)이 주장한 자신이 성장해오면서 습득하게 된 언어, 가치관, 일상생활 방식 및 습관, 가족관계에 대한 개념과 역할, 역할인식과 상대적 지위 등 문화적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여성의 남편에 대한 인식과 기대도 자신이 성장해 온 문화에 기반을 둘 수 있다. 농촌 결혼 이민여성들이 결혼생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터전에서 '신

기성'을 경험하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경제적인 동기가 강조됨에 따라 인식되지 못했던 이러한 욕구와 인식 역시 조망될 필요가 있다(양승민, 연문희, 2009)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지각하는 남편역할에 대한 경험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인 경험들을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조차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지지해주며,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헤아려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의 고마운 마음씨를 느끼고 있었다. 부인인 자신이 하기 힘들어 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힘든 점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은 남편이며,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친정식구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며 물질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남편들은 다문화가정 부부간에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음식과 습관도 부인을 위해 바꾸어가고 있었으며, 집안일이나 아이의 숙제를 남편이 도맡아서 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못하면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아내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지지하고 챙겨주기도 하였다.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시어머니나 아내의 편을 들기보다 중립을 유지하고 시댁과 아내를 똑 같이 챙겨주면서 가족의 균형을 도모하고 화합하도록 하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남편들 중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조치조차 방관하여 아내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출산과 병원 다니기, 아이 숙제봐주기도 혼자 부딪히며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며,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마음대로 하라며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막막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내가 결혼 초기에 한국생활이 힘들어 혼자 울고 있어도 달래주고 힘이 되어주기 보다는 함께 우는 남편도 있었으며, 아내는 남편이 사랑한다, 고생했

다 등과 같은 감정표현이 없고 기념일도 안 챙겨주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답답하고 섭섭해 하였다. 아이를 낳고 살아도 출신국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말로 아내를 아쉽게 하기도 하였다.

결혼 초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은 집안일을 도맡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당연시하고, 가족과 외출하기, 친척집 방문, 집안대소사에 관련된 일도 챙기지 않으며 부인에게 미루기도 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아이나 부모, 친척을 먼저 챙기며 아내를 섭섭하게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아내의 말은 듣지 않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였고, 아내는 자신이 못살아도 부모한테 잘 해야 하는 한국의 '효문화'와 형제와 친척을 먼저 챙기는 '시댁문화'를 이해하기 힘들어 했으며, 남편을 바보스럽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남편의 음주행동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집에서 큰 소리를 내므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므로 아이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모습에 힘들어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다문화가정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이 경험한 남편의 역할 중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민여성의 인식과 바람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남편은 아내가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문화, 시댁문화에 잘 적응해 주기를 인식한다(양승민, 연문희, 2009)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남편역할 인식과 경험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 이후의 생활이 만족스러울지 그렇지 못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대와 희망에 집중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의무나 위험 부담은 관심에 두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들(양승민, 연문희, 2009).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이 주장하는 바와 맥을 같이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이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 간의 문화적 차이와 경험을 나누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남편역할 인식과 경험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배우자로서 남편의 개인적, 정서적 특징과 아내인 자신과의 관계만 생각하였다면, 한국으로 결혼해서 이주한 후의 결혼생활은 시대와 친척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남편의 역할도 시대와 친척을 돌보는 것에 많은 부분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가족의 범위가 다문화가정 여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넓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부부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은 출신나라 별로 문화가 다르며, 연령과 결혼기간 등 개인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배우자 역할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다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 남편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강혜정(2009).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활동 실태 분석. *농촌경제* 32(5), 133-152.
- 교육인적자원부(2007).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김승권, 김유경, 조애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 정해숙, 김영주(2008).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류진아(2011). 농어촌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유형과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5-27.
- 문은희(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여가참여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동(2007).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12(4), 395-432.
- 박재규(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적응 관련요인분석: 전북지역사례. *농촌경제* 29(3). 67-84.
- 박진희(2012).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활동 방안-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국 경찰학회보*, 33, 149-183.
- 변미희, 강기정(2010). 다문화가정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련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2), 127-141.
-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성현란(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 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219-239.
- 안효자, 박순희, 최은정(2010). 농촌거주 국제결혼 한 한국인 남성의 음주와 결혼안정성: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9(4), 429-436.

- 양순미(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5-39.
- 양순미, 정현숙(2006).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한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승민, 연문희(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43-966.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윤명숙, 이해경(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2(6), 103-135.
- 유영은(2006).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문화적응에 관한 사례연구와 지원방안: 경기도 북부지역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4).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동 중단을 위한 한국적 집단개입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295-327.
- 이정희(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2007).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혜경 외(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행정안전부(2010). *외국계주민현황조사*.
- 한국여성개발원(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 Aldous, J.(1974). *The conceptual aooriach, The Developmental Aooriacg to Family Analysis*. Athens :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Berry et al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R. Dasen, J. W. Berry, & N. Sartorius(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s applications* (pp.207-236). Newbury Park, CA: Sage.

- Colaizzi(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In: Valle, R.S.King, M.(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Duvall, E.M.(1974).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J. B. Lippincott, P. 69-87.
- LA타임즈(2006). 한국 농촌의 국제결혼 실태. (9.21일, 1면과 10면).
- Lincoln, Y. S., & E. A. Guba(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Strauss, A.,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Received 15 November 2012; Revised 3 March 2013; Accepted 08 March 2013*

## Phenomenological Study on Husband's Role in Rural Multicultural Family

Hae Sun Cho<sup>a</sup> · Jin A Ryu<sup>b</sup>

<sup>a</sup>Baek Hak Child-Care Center, Yeoncheon, Kyeonggi 486-881, Republic of Korea

<sup>b</sup>Dept. of Social Welfare, Hanbuk University,

Dongducheon-city, Kyeonggi 483-777, Republic of Korea

###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quality study to examine cognition and experience as it is about husband role of wife's perception in rural multicultural family. Specifically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13 females in rural multicultural family was analyzed through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first, wife's cognition about husband role in rural multicultural family, they were 'nice and warm man', 'no special thought', 'clean and cool looking man', 'man without straitening wife', 'husband taking care of housekeeping', 'having independent family' and 'strong responsibility to children'. Females in rural multicultural family did not deeply think about husband's role at international marriage, but it could be known that vague longing for rich country, Korea by Korean wave and its expectation continued to expectation on husband. Second, they were 'good-tempered and nice to me', 'adjust to me', 'irresponsibility and apathy', 'cannot lean to him', 'no housekeeping', 'intermediate role between his family', 'more taking care of children, parents and relatives', 'drink, gambling and violence.' The experience of husband role was little different from cognition of husband role by females in rural multicultural family.

**key words** : husband's role, multicultural family





Hae Sun Cho is a director of , Baek Hak Child-Care Center, Yeoncheon, Kyeonggi 486-881,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rural multicultural family, and child care practice and program.

Address: Baek Hak Child-Care Center, Baek-hak-myeon Dooil-li 477-3 Yeon\cheon, Kyeonggi 486-881, Republic of Korea

e-mail) sunhea427@hanmail.net, phone) 82-31-835-5975



Jin-A Ryu is a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Hanbuk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child and adolescent's welfare especially counseling.

Addres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buk University, Sangpae-dong, Dongducheon-city, Kyeonggi 483-777, South Korea

e-mail) jina1031@hanbuk.ac.kr, phone) 82-31-860-1416